

중앙대, '인공지능과 미래 역사' 주제로 전국학술대회 연다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3.13 11:19

AIH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제3회 인공지능인문학 전국학술대회

인공지능과 미래 역사

일시
2019년 3월 15일(금)
13:00 ~ 18:20

장소
중앙대학교 302관 503호
(대학원동 5층 대강당)

일정 시작 : 13:00(등록인원보고)

12:30~13:00	등록
13:00~13:20	개회식 축사 김혜경(인간환경미래 연구원장) 이찬규(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장)
13:20~13:50	1부 기조 강연 <인공지능-진화의 총학역?> 이태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3:50~14:20	발표1 <인공지능 시대의 근대성 개념 비판 브루노 라투르의 비판적 근대 인식> 양재형(중앙대학교)
14:20~14:50	발표2 <인공지능의 역사 서사적 허구에서 문화 상품, 그리고 과학적 사실로> 박소영(중앙대학교)
14:50~15:00	휴식
15:00~15:30	2부 기조 강연 <인공지능과 빅히스토리> 조현욱(과학과 소통 대표)
15:30~16:00	발표3 <빅히스토리과 역사교육> 김종근, 김한승(하나고등학교)
16:00~16:30	발표4 <인공지능 인문학과 빅히스토리 정보적 관점에서> 박준식(비대학교)
16:30~17:00	발표5 <인공지능 시대 역사, 빅히스토리> 김기봉(경기대학교)
17:00~17:10	휴식
17:10~18:00	3부 종합 토론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의 과제 미래 역사와 인문학> 좌장 박경해(중앙대학교) 토론 이진일(성균관대학교), 박명중(중앙대학교), 이상동(성균관대학교), 천현득(서울대학교), 황해성(한성대학교)
18:00~18:20	연구 윤리 교육 및 폐회식

주최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
후원 | NRF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문의 | 02-881-7354

[잡포스트/대학] 홍승표 기자 = 중앙대학교가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캠퍼스에서 '인공지능과 미래 역사'를 주제로 '제3회 인공지능인문학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연구단에서 주관하며, 인공지능 시대 및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역사학과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진화의 종착역?', '인공지능과 빅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는 이태수 명예교수(서울대), 조현욱 대표(과학과 소통)가 나서며, 양재혁, 박소영 연구교수(중앙대), 김중근, 김한승 교사(하나고), 박충식 교수(유원대), 김기봉 교수(경기대)의 연구발표, 박평중 연구교수(중앙대), 이진일, 이상동 교수(성균관대), 천현득 교수(서울대), 황혜성 교수(한성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등이 실시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빅히스토리와 같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래에 인공지능인문학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승표 기자